

Magazine
CGN
Summer 2014_Vol.5



〈커버스토리〉 김경란 아나운서

CGN STORY
선교지에 CGN선교사들

CGN Interview
삼인삼색 멘토들의
청년전도프로젝트

CGN Choice
〈믿음의 씨앗, 고향 교회와 함께〉
〈현장스케치〉 〈힐링유〉 '가수 알리' 편



www.cgntv.net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 TV
tel. 02-796-9800 fax. 02-749-6638



confession 고백

하늘과 땅과 바다와 꽃을

그리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가슴을 허락한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직 그분께 속한 것이기에

그분이 선택한 내 삶이

그분이 선택한 내 감성이

변하지 않고 온전히 사용될 수 있기를...

부족한 나를 선택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난 여전히 그분에게 아픔을 주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오늘도 기도로 용서를 구한다.

— 볼리비아

신미식 | 사진작가, 여행수필가 |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프레임 안에 사람과 삶, 다채로운 풍경을 담아낸다.
저서 <머문자리>, <사진가는 길에서 사람을 배운다>, <에티오피아, 천국의 땅> 외 다수

인생 人生

비울수록 채워지는

토기장이가 명품 도자기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재료가 되는 흙을 떠오는 일입니다. 그 다음 떠온 흙을 떡메로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도자기를 만들려면 합당한 점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죽이 잘된 흙은 물레에 오르고, 토기장은 구상한 대로 도자기의 첫 모양을 잡은 후, 물레를 돌려 섬세하게 그것을 다듬어 갑니다.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드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고 훈련시키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때로 광풍을 만나듯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방황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버둥거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의 강한 손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18장 6절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손에 속해 있습니까? 토기장이의 손, 즉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흙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가지입니다. 토기장이를 믿고 우리의 전부를 맡기는 것.

하나님의 손은 물레 위 진흙에 토기장이의 손이 거침 없이 들어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때로 맹렬하게 들어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비우지 않으면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먼저 자신을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우리가 비운 자리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포토에세이 | 사진작가 신미식
프롤로그 | CGNTV 총괄본부장 김경훈 목사

CGN STORY

06

CGN 스토리 | CGN 선교사들
세상을 섬기는 여름
선교지에 CGN 선교사들

10

CGN 인터뷰 | 손창남 선교사, 송준기 목사, 서종현 선교사
삼인삼색 멘토들의 청년전도프로젝트

PEOPLE

14

커버스토리 | <통일복소리> 진행자 김경란 아나운서
꿈꾸는 일상 사명의 자리

16

선교지의 아침 | 일본 송지웅, 박혜민 선교사
사랑이 사랑을, 위로가 위로를

18

CGN 패밀리 | CGNTV 중보기도팀
세상을 품는 자리

PROGRAM

20

현장스케치 | <힐링유> 가수 '알리' 편
가수 알리와 함께 한 힐링 타임

23

CGN 초이스 | <믿음의 씨앗, 고향 교회와 함께>
그리운 그곳 고향 교회를 찾아

25

모니터단 시청소감

C O N T E N T S

Summer 2014_Vol.5



표지 이야기
김경란 아나운서.
그녀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MISSION

26

CGN 스페셜 | 김아영 교수
이슬람 선교 해법 II :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

NEWS

28

CGN 뉴스 | 해외
미주, 일본, 중문, 태국, 아랍

30

CGN 뉴스 | 국내

32

요일별 편성표

SUPPORT

34

후원자 사연 | 공민

35

후원안내

CGN

Magazine CGN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4년 6월 21일(통권 제5호) | 발행처 CGNTV (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85-4 CGNTV | 발행인 이재훈 | 대표 유재건 | 편집인 김경훈, 함태경 | 기획 CGNTV 홍보팀
진행·편집 정원이, 조인애 | 글 조인애 | 사진 조대우, 여준원, 스파지오 | 디자인·인쇄 페이지원 (02-757-3111)

세상을 섬기는 여름 선교지에 CGN선교사들

CGNTV는 2014년에도 '세상을 섬기는 방송'으로 팔을 걷어붙인다.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지에 부지런히 영적 생수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주시는 마음에 따라 선교에 직접 뛰어드는 것도 이젠 익숙한 일이 됐다. 선교의 허브로서 또 다른 형태로,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 6월도 하순으로 치달으며 CGNTV의 보이지 않는 선교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전 직원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2014 아웃리치

CGNTV는 2005년 개국 이후, 전 직원이 매년 여름 국내의 선교지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아시아권은 물론 남미,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CGNTV의 전파가 닿는 곳이라면, 직원들도 꼭 한 번 그 땅을 밟았다. 직원들 중에는 여러 나라를 다녀 온 이들도 많다. 비록 일주일 안팎의 일정이지만 직원들은 아웃리치를 마치고 올 때마다 앓은 자리에선 절대 알 수 없는 선교지의 숨결과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온다.

주요 사역은 크게, 동선을 따라 선교지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고, 아직도 CGNTV를 보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창처럼 CGNTV 안테나를 달아주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도, 홈페이지를 꾸미는 디자이너도, 사무를 보는 직원도 누구든 예외가 없다. 또 직원들은 선교지를 품은 국내 많은 크리스천들을 위해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과 사역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 전한다. CGNTV를 후원하고 돕는 이들 중 상당수가 그러한 영상들을 통해 CGNTV가 선교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한 경우들이 많다.

10주년을 코앞에 둔 올해도 전 직원 아웃리치는 계속된다. 특히 올해는 내년 CGNTV 개국 10주년을 앞두고 6월 말부터 아웃리치를 연중 상시 진행한다. 중점 사역은 개국 10주년을 앞두고,

영상, 사진, 인터뷰 등 보다 기획이 강화된 선교지의 풍경을 담고, CGNTV 해외 지사를 중심으로 거점 사역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올해 국내를 포함해 지사가 있는 국가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 인도, 러시아, 필리핀까지 추가해 총 8개 국가에서 아웃리치를 펼친다.

지사 지원 사역은 지사에서 준비 중인 특별 사역을 돕고, 지사가 선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안테나 및 선교 지원 사역을 펼치는 것. 특히 올 9월 지사 설립을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2개 팀이 참여해 지사 설립 행사 준비 외 안테나 설치 사역 등을 진행한다. 또한 미래 지사 설립을 고려중인 인도 팀은 지사 개척 지역을 조사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2012년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를 조사한데 이어 올해는 나갈랜드 지역을 살펴볼 예정이다. 나갈랜드는 기독교 인구가 90%고, 비교적 방송선교 활동에 용이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인도 팀은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다양한 현장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선교지를 품은 마음이 실제 사역으로 CGNTV 제1호 선교사

CGNTV는 전 직원 아웃리치를 통해 선교지와 호흡하는 것에 이어,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부터 직원들 중 직접 선교사를 선발하는 '선교 헌신자 선발'을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1기로 총 4명이 선발됐고, 이들은 올해 하나 둘씩 파송 수순을 밟고 있다.

1기 선교 헌신자들은 각자 비전을 품은 국가를 두고 그간 영성 및 언어 훈련에 매진했다. 이에 이들은 오는 7월 25일 CGNTV 제 1호 선교사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이후, 선발된 운영준 국장은 인도네시아, 이철원 PD는 일본 오사카, 박미진 사원은 일본 동경으로 파송되며, 같이 선발됐던 박재용 국장은 개인적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교육선교사로 태국 선교를 준비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 3월 3명의 2기 선교헌신자들이 선발됐다. 미주제작팀의 신정길, 기술국 송출팀의 송인승, 제작국 영상제작팀의 김재경 사원이 그들. 이중 신정길 사원은 1기 선교 헌신자 파송 시 인턴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함께 현장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2기들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CGNTV 직원으로 일하다가 선교사역에 비전을 품었다. 신정길 사원은 아웃리치를 통해 만난 이들의 모습에서 큰 도전과 비전을 보았고, 송인승 사원은 오랫동안 북한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던 중국이 북한 선교에 전략적 거점으로 판단돼 선교사의 길을 결정했다. 김재경 사원은 일본 파견 업무 중 일본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돼 이번 선발에 지원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발로 뛰는 선교 방송 CGNTV 해외지사들

선교헌신자들이 파송될 지역은 대부분 CGNTV 해외지사인 경우가 많다. CGNTV 해외지사들이 위치한 국가들 대부분이 복음에 취약한 곳이자 개척이 절실한 땅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사들의 주요 활동도 방송을 제작, 송출하는데 앞서 먼저 현지 교회들과 연합하고, 선교사들을 돕고, 현지 선교를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CGNTV는 지난해 주일학교가 취약한 일본 교회를 위해 차세대 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마련해 현지 교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올해는 이스라엘 선교를 테마로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일본은 현지 교회와 연합해 NGO '아가페CGN'을 설립해 몸소 현지인들의 어려움 등을 돕고 있다. 아랍 CGNTV도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땅에서 그 땅의 영적성장을 돕는 연합을 이어가고 있다. 현지에 없던 찬양집회를 처음 마련했고, 올해는 <미디어 미션 콘퍼런스>에 참여해 방송선교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태국 또한 PD가 전국 각지를 돌며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콘텐츠를 DVD로 제작해 현지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지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선교지를 돕는 선교사로서 잊는 CGNTV는 올 9월 인도네시아로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인도 지사 설립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국내 곳곳에 사랑을 나누며 CGNTV 농어촌 선교

CGNTV의 발로 뛰는 선교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예외가 없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역의 영역에 제한이 없고, 프로그램 제작도 선교 활동의 연장선이 되고 있다.

CGNTV 국내 아웃리치 팀은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와 협력해 오는 7월부터 국내 농어촌의 일손을 도우며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첫 지역은 경상북도 봉화. 이곳은 주일이면 CGNTV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사과 농사 등을 주요 업으로 삼고 있다.

CGNTV는 아웃리치 기간 이외에도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와 함께 주말을 이용한 1박 2일 섬김 방안도 타진 중이다. CGNTV 프로그램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도 출연자들이 고향교회를 찾아 농촌 교회 사역을 지켜보며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다. CCM가수 나무엔, 방송인 리키 김 등이 CGNTV와 함께 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밖에 CGNTV의 프로그램 <은빛날개>에서는 방송분 내에서 실제 아웃리치를 시행했다. <은빛날개>는 CGNTV가 올 한 해 시니어선교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아웃리치는 출연자들의 시니어 선교 훈련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로, CGNTV는 그간 이들이 시니어 선교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몇 주에 걸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램을 진행해왔다. 각 멤버들은 아웃리치 내내 방송을 잊고 그간 축적했던 선교의 열정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아낌없이 쏟았다.

이들이 찾은 곳은 충북 보은 회남교회였다.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 간 진행된 아웃리치는 교회 정리 및 외관 제초 작업 같은 허드렛일로 여정을 시작했다. 이후 독거인과 다문화 가정이 많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전에 준비한 전도물품을 들고 축호전도를 시작했다. 양손 가득 물티슈, 양치세트 같은 교회 소개 전도용품과 독거인들을 위한 라면, 사탕, 돌보기,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문구, 성경책, 과자류 등을 몸소 골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독거노인 20명, 다문화 가정 2곳을 방문했다.

또한 시니어 선교사들인 만큼 자신들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사역들도 빛을 발했다. 안효숙 단원은 회남교회 교인들과 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검안 후 맞춤형 안경을 전해주었다. 안경 사역은 오랫동안 그녀가 걸어온 길이기도 했다. 김정례 단원은 솜씨를 발휘해 다문화 가정에 옷을 만들어 주었고, 전미란 단원도 방문가정과 교회에 오는 이들에게 손수 쓴 붓글씨 액자를 선물하며 복음을 전했다. 또한 남성 단원들도 악기 연주 등으로 매일 밤 예배를 섬기며 농어촌 선교지의 밤을 밝혔다.

삼인삼색 멘토들의 청년전도프로젝트



CGNTV <청년전도프로젝트 RUN>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방송 후 유튜브, 각종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며 청년 전도자들로부터 다양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홍대 앞 밤샘 전도를 다룬 2편이 방송된 후에는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콰이어와 함께 하고 싶다는 홍대 앞 전도 현장으로 많은 이들이 모여 들었다. 방송 당시 20여 명이었던 콰이어가 최근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도자들로 100여 명에 이른 상태다. 청년 전도를 향한 많은 크리스천들의 갈증들이 <RUN>을 통해 다소 해갈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RUN>은 전도자들의 다양한 청년 전도 현장을 여과 없이 조명한다. 또한 대학생 중 기독교인이 3%, 이제까지 해왔던 찬양 집회, 길거리 전도 등을 통한 전도 비율이 전체 전도에 5%도 못 미치는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눈높이 전도 해법을 직설 화법으로 모색해 간다. 이에 <RUN>의 무게 중심이 되는 삼인삼색 멘토들을 만나 그들이 말하는 청년 전도에 관한 생각을 키워드 중심으로 짚어봤다.



1. 요즘 세대들..

손창남 전반적으로 흥악한 일들이 많아 의심이 많아졌죠. 예전엔 공원이나 거리에서도 “제가 잠시 예수님에 대해 말해도 될까요?”란 말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쉽지 않죠.

서종현 4편에 함께 출연했던 주희가 방송을 본 후 “나 너무 똥똥해”라고 해서, 저도 “그래 너 똥똥해”했어요.(웃음) 무엇이든 자꾸 돌려 말하면 그 사람이 진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 말은 잘 안 듣게 되죠. 때론 상처가 되도 요즘 세대들은 진실한 직언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송준기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포스트모더니즘 세대라는 점입니다. 모더니즘 세대에선 정답이 있는데 포스트모더니즘 세대는 정답 자체를 부정하죠. 정답을 두고 강요하는 것에 불만을 품는 가치관입니다.

2. 매개체..

서종현 소년원, 대안학교, 교회 등에서 강의하면서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제게 데려오기도 하지요. 제가 워낙 힙합음악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음반작업을 해왔는데,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과는 그것이 대화의 좋은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송준기 홍대 앞 밤샘 노방 찬양은 버스킹 형태를 띠는데 그곳에 있는 이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줍니다. 원래 버스킹은 한 곡이 끝나면 뮤지션들이 부른 곡에 관해 관중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저희 관객들도 5분이든 10분이든 그 시간 찬양에 담긴 복음을 그대로 듣는 것이지요. 찬양이 모두 끝난 후에는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일대일로 만나 질문하고 복음도 전하게 됩니다.

손창남 전 일반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10년간 사역했던 선교지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늘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양육했습니다. 저는 교수라는 위치가 수족관에서 낚시하는 것만큼 복음을 전하기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진로나 개인 신상 그리고 신앙의 문제까지 많은 것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손창남 선교사

송준기 목사

서종현 선교사





3. 친분? 관계?

손창남 전도의 방법도 새로운 상황에 맞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요즘 세대가 낯선 사람을 경계하면 낯선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를 잘 이루고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송준기 요즘 청년들은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죠. 또 포스트모더니즘의 젊은이들은 줄줄이 사탕입니다. 한 명이 전도되면 그와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들은 기독교에 반감이 있다라도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을 순식간에 내려놓기도 합니다.

서종현 일반적인 구도에서 친분이 없다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관계가 좋으면 전날 술을 잔뜩 먹은 친구일 지언정 오늘 교회가기로 했다 하면 약속을 지킵니다. 물론 처음엔 그저 교회에 가 있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동안 저를 통해 복음의 실체를 들었기 때문에 언젠간 구원을 대입할 순간이 오면 그 진실을 깨달을 것이라 믿습니다.

4. 대화 방법..

송준기 포스트모더니즘의 젊은 세대들은 일방적인 주입을 꺼립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길 원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려면 정답이 아닌 정답을 형성하게 된 과정의 끝에 물음표를 던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를 “예수님은 누구실까요?”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는 “당신이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와 확실히 다른 언어입니다.

손창남 훌륭한 크리스천들 중에도 전도의 어장에서 물고기를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당신이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낚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것에서 영적인 대화로 이어가고, 결단을 촉구하는 등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경우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 출세를 지향합니다. 그럴 때 “그럼 행복해 질 것 같니?” 등 관심을 끌이 이야기를 던져 볼 수 있습니다. 반응에 따라 성경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영접 기도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를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 일반화 시키는 계기를 갖고 있습니다.

송준기 여러 도전적인 전도 방법들이 방송을 통해 선보이니 많은 이들의 신뢰를 얻고 파급효과도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보고 노방 전도 현장에 찾아와드며 원리를 배워서 자신이 시는 부천에서도 하고 싶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방송 덕분에 전도하는 청년들이 가족들에게 용원을 받기도 하고요. 현재 <RUN>을 통한 청년 전도가 ‘무브먼트적’으로 꿈틀거리면서 많은 청년들이 전도에 자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5일부터 2박 3일 부산 해운대에 모여 복음을 전하지는 의견도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 한마디 더..

송준기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는 문화가 결정하는데 우리가 전달하려는 것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를 형성한 복음입니다. 따라서 현재 청년들의 문화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문화와 다르다고 해도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얼마든지 다른 문화를 넘나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쓰는 사람에게 계속 한국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손창남 청년 전도에 있어 교회나 청년 단체 등 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더 수용성이 있죠. 개인의 경우 거부당했을 때 서로에게 리스크가 생길 수 있지만, 공동체는 조금 다르고 강요하는 느낌이 덜 할 수 있습니다. 전염성 있는 공동체가 더욱 필요합니다.

서종현 제가 모든 아이들을 돌보지 못합니다. 저와 맞는 아이들이 있지요. 교회들도 모든 청년을 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라는 직업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그들은 단지 일을 진행하는 리더일 뿐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복음 전달에 대한 사명이 필요합니다.

서종현 젊은 세대들은 복음이 정확하게 복음의 색깔일 때 받아들입니다. 전달하는 자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실행하는 것을 보이면 그들은 그 복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5. <RUN>의 효용..

손창남 최근엔 강의나 책 등을 통해 선교 동원 사역 중입니다. 선교를 알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장소에 참석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RUN>에 관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서종현 <RUN>을 하면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간혹 저를 통해 공격성을 취득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꿈꾸는 일상 사명의 자리

통일북소리 MC 김경란 아나운서

김경란 아나운서가 CGNTV <통일북소리>의 진행자로 시청자들을 찾았다. <통일북소리>는 CGNTV 북한선교프로그램 <반갑습니다>의 '시즌 2'로, 올 봄 1편이 시작했다. 그녀를 중심에 두고 새 단장을 마친 프로그램은 방송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또한 그녀와 북한선교프로그램의 조합, 이를 선택한 그녀의 생각도 다소 궁금한 대목이었다.

새로운 시작들

그녀는 지난 해 안정된 공중파 아나운서 자리를 내려놓고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당시 그녀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열여섯 주일 일들에 대해 설렌다"며 "가슴 뻐할 수 있는 하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믿음의 증거일까? 일단 시청자들은 그녀가 프리랜서가 된 이후, 그녀의 다양한 행보를 지켜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진행자로 익숙한 그녀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구호활동을 펼쳤고, 나눔 재단을 만들어 꾸준히 남수단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다. 방송 또한 이전과 다른 장르들도 눈에 띄었다. <통일북소리>의 마이크를 잡은 모습도 그중 하나일 게다.

<통일북소리> 첫 방송에서 그녀는 프로그램 타이틀의 의미를 짚어보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통일북소리>는 언뜻 '북한의 소리, 즉 그곳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뜻이 떠오른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좀 더 깊은 뜻은 '양쪽이 울려야 소리가 나는 북(악

기)처럼 남북 북이 하나 되어 통일을 향한 울림, 소리를 내보자는 취지다. 실제로 <통일북소리>는 그 방향에 맞춰 여러 형태의 삶을 사는 탈북민들의 생생한 이야기, 찬양콘서트, 그리고 남북 청년들의 대화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기획 아래 프로그램의 키를 바로 잡고 가는 듯 보였다.

그녀는 "탈북민들의 모습에서 굉장한 근성을 보게 된다"며 "남북이 서로 상호 보완되면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회를 내비쳤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북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가오는 통일의 시대를 위한 희망 같은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방송을 진행하며 프로그램의 취지를 가장 먼저 느끼고 깨닫고 있는 그녀의 말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녀의 면모를 보면 더욱 수긍이 된다. <통일북소리>에서 보이는 그녀의 진행은 이전과는 또 다른 향기를 남긴다. 패널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영적인 중심을 헤아려 그 편의 취지를 잘 정리하고 이끌어 준다.

실제로 그녀는 "하나님께서 유독 어떤 상황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같다"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남일 같지가 않단다.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 건조해보려 한 적도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지으신 이유에 따라 서러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그녀의 방송철학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엔 그저 사람들이 미소 지을 수 있는 방송을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최근에는 생명을 살리고 평안을 흘려보내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 그녀의 마음이다. 그래서 뉴스를 진행할 때도 이



것이 7,80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루 종일 일하고 유일하게 세상을 들을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하며 임했다고 한다.

<통일...>에서 만난 사람들

그래서인지 녹화가 있던 인터뷰 당일,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가장 먼저 게스트들을 챙기는 데 애쓰는 듯 보였다. 인터뷰에 앞서 그녀는 "일이 없을 때는 확 없고 몰릴 때는 한꺼번에 몰리는 상태라 최근 스케줄 조정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는 상태"라고 털어놨다. 그도 그럴 것이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들어 한 달에 한 번 꼴로 외국을 다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바쁜 동선 가운데에도 다음 녹화 게스트들을 맞이하며 미소를 나누었다.

그녀는 패널들에 대한 마음도 살가워 보였다. 그녀는 탈북민이기도 한 그들을 보면서 "평소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도 만나면 몇 마디만으로도 서로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고 고백했다. 보조 MC인 개그맨 오지현에 관해서도 "필요할 때 진행 센스를 발휘해 주는 것이 좋고, 함께 할수록 마음 받아 선한 사람 같다"고 말했다.

녹화에 들어가기 전 그녀는 출연자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생각들에 늘 가슴이 뛰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현장에 올 때마다 "일의 연장이 아니라 생수를 먹는 순간 같다"고 이야기했다.

북에 대한 마음

그녀에게 <통일북소리>의 진행을 맡게 된 이유에 관해 물었다. 특별히 북한에 대해 각별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녀는 "북한에 대



"북한에 대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부어주신 마음인 것 같다"

한 소망, 아픔, 사명감 같은 것들은 특정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사는 대한민국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부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우연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도 덧붙여 이야기했다. "프로그램 제안을 받기 전, 어느 날 카페에 갔는데 그곳이 탈북민들이 일하는 곳이었다. 또 오랜만에 본 영화가 북한 인권영화 <48미터>였고, 다니는 교회 방송에 출연 중인 탈북청년 강 디모데 형제와 이야기하며 여러 도전도 받았다"고 했다. 돌아보니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처럼 연결 돼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혹시 <통일북소리>를 보았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그 일은 김경란 아나운서가 만난 여러 일들처럼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닐 듯 싶다.



사랑이 사랑을, 위로가 위로를

“함께 해준 ‘일본CGNTV’ 식구들에게 감사”

지난 5월 CGNTV 본사로 정성껏 쓴 손편지와 약간의 현금이 동봉돼 도착했다. 발신인은 일본 오사카에서 사역 중인 박혜민 선교사였다. 그녀는 편지 말미에 동봉한 현금을 세월호 참사로 고통 받고 있는 분과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그렇게 마음먹게 된 사연을 편지지 두 장에 빼곡히 담아 보냈다.



1



2

“할렐루야 사랑하는 CGNTV 식구들께 감사 문안드립니다. 최근 저희 가족은 고국의 세월호 침몰 소식을 전해 들으며 한없이 슬펐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겪고 있는 아픔과 시련은 비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 1월 박혜민 선교사의 남편 송지웅 선교사가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한 젊은 여성이 운전하던 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던 송 목사의 차 운전석 쪽을 심하게 치고 달아난 것이다. 송 목사는 그 사고로 한 달을 입원했고,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통원치료 중이다.

뇌진탕으로 인한 쇼크와 난청이 심했고, 자율신경이 손상돼 계속해서 어지럼증과 두통에 시달렸다. 또한 치료 부작용으로 피부병까지 생겨 지켜보는 가족 모두의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다. 사고 차량이 도주하는 바람에 생긴 병원비에 차수리비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었다. 박 선교사가 펜을 들게 된 이유는 가족 모두 참담했던 그 순간, CGNTV를 통해 남다른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사고로 힘들었을 때 일본 CGNTV 식구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 중보기도에 힘써 주셨고, 저희 보다 더 저희 형편을 염려해 주시면서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맙던지 저희 가족은 그 섬김에 참 많은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고 소식을 나눈 뒤 며칠 후 그녀는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봉투를 열어보니 일본 CGNTV 김창호 국장 부부가 짧은 편지와 함께 10만 엔 가량의 현금을 담아 보낸 것이었다. 자녀의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보낸 편지를 보면서 박 선교사는 더 없이 가



3



4

- 1. 거리 노숙자 전도대회, 송지웅 선교사와 교인들.
- 2. 송지웅, 박혜민 선교사 부부와 CGNTV 아웃리치 팀. 그들이 전도한 일본인 아즈마 상(사진 중앙, 두 선교사 부부 사이)과 함께.
- 3. CGNTV로 보내 온 박혜민 선교사의 손편지
- 4. 2011년7월 센다이 스나미 피해 주민 집수리. 해외 각국 봉사팀과 함께.

슴이 몽클했다.

송지웅, 박혜민 선교사가 일본 CGNTV 식구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두 팀 모두 ‘일본 선교’라는 한 뜻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난 해 일본 CGNTV가 제작하는 선교프로그램을 인연으로 만났고, 일본 불신 가정에 CGNTV 안테나를 달아주는 일, 일본 재난 현장 등에서 동고동락했다. 송 선교사와 박 선교사는 2001년 파송돼 현재 오사카 니시나리 지역에서 사역 중이다.

“고난도 유익”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저희 가족이 겪고 있는 아픔도 돌아보니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낯선 일본 땅에 와서 외롭고 지쳐갈 때 CGNTV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고난의 길목에서 CGNTV 식구들을 통해 위로를 주셨습니다. 일본 땅에 CGNTV가 있어 감사합니다. 일본 CGNTV 식구들이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CGNTV는 전 세계 선교사들의 희망입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저희는 선교사로서 더욱 사명감을 갖고 일본 부흥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박 선교사가 동봉한 현금은 그들이 일본 CGNTV 식구들에게서 받은 금액의 십일조다. 여전히 그들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세월호 사건으로 아파할 이웃들의 고통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들이 보낸 금액은 CGNTV를 통해 이번 세월호 사고로 자녀를 잃은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 전달됐다. 현금의 액수는 시각에 따라 미미할 수도 있지만 고통 중에 위로를 받았던 이들의 마음, 몸소 느낀 믿음이 담긴 것이라 의미가 깊다. 가족을 잃은 비통한 가슴에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한 줄기 온기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다.

세상을 품는 자리

“선교지에서 CGNTV의 역할이 크다. 안 봐도 틀어 놓아라.”



“안 봐도 틀어 놓아라” CGNTV 금요중보기도팀 대표 류석인 권사의 생각이다.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류 권사는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물론 시청률이 오르면 방송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주변에 이런 권면도 마다하지 않는다.

CGNTV에는 매주 금요일과 매달 첫째, 셋째 월요일 두 팀의 중보기도모임이 있다. 두 팀은 모두 CGNTV가 사전에 취합한, 해외 제작센터를 포함 CGNTV 30여 개 팀의 기도제목을 받아 두 시간 가량 기도를 이어간다.

사랑이 없다면 그저 듣고만 있기도 만만치 않은 세세한 부탁들이다. 70대 이상 80대에 이르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기도가 사명의 원동력인 것을 누구보다 앞서 아는 그들은 몇 년에 걸쳐 발길을 놓지 않고 CGNTV 사역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들은 공통의 기도제목은 물론 대표 유재건 장로의 건강, 직원 누구의 결혼, 결원이 생긴 팀의 충원, 아웃리치 팀의 건강까지 매번 자신들의 몫으로 여기고 있다.

금요팀 류석인 권사는 CGNTV가 개국을 앞둔 시기, CGNTV를 위해 홀로 중보 기도자를 자처했다. 당시 류 권사는 개인기도 중 여러 차례 같은 환상을 보고 CGNTV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다. 류 권사는 3개월 간 중보학교도 수료했고 그곳에서 간증을 한 후, 지체들에게 기도 모임도 제안했다. 하지만 처음 그녀와 함께 한 기도의 동역자는 여자 청년 한 사람 뿐이었다. 외로운 시작이었지만 그녀는 주변에 권면의 끈을 놓지 않았고, 지금은 20명에 가까운 권사들과 함께 기도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월요중보기도팀은 지난 해 CGNTV 유재건 장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인도자로 섬기고 있는 고영희 권사가 이를 수락했고, 그녀가 속했던 20여 명의 기도 공동체가 뜻을 같이 했다. 고 권사는 “권사들이 때론 자리도 불편하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아름답다”며 “지금은 조장도 세워 서로 조원들을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고 권사는 현재 에디오피아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의 어머니다. 그녀는 “에디오피아에 직접 가보니, 어렵게 연결된 CGNTV를 통해 말씀을 듣는 감회가 이곳과 또 다르다”며 “선교지에서 CGNTV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CGNTV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제일 처음 기도 모임을 시작하기 전 CGNTV 전 층을 돌면서 일일이 각 부서 직원들을 대면하며 중보기도를 시작했기에 더욱 그렇다. 방송을 보다 아쉬운 부분이 보일 땐 내 일처럼 연락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한 CGNTV 중보기도팀들은 매년 2회 가람 미자립교회에 안테나도 후원한다. 그들은 지난 5월 30일에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꿈의 교회’를 방문해 안테나를 지원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심었다.

‘꿈의 교회’는 1998년 22살 나이로 탈북한 석경애 전도사가 사역 중으로, 주로 탈북자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다. 성인 20여 명, 아이들을 포함하면 50여 명의 성도가 함께 하고 있다. 당일 중계 동에서 의정부로 이전해 성전 정돈에 한창이었던 ‘꿈의 교회’는

1. 월요중보기도팀
2. 금요중보기도팀이 탈북 사역자인 ‘꿈의 교회’ 석경애 전도사에게 화관을 전달하고 있다.

전도사를 비롯해 역경을 겪은 온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CGNTV 중보기도팀은 이날 석 전도사가 전하는 탈북 성도의 생생한 간증을 들었고, 지난해 탈북한 남녀 성도의 뜨거운 글과 찬양도 들으며 그들의 아픔과 은혜를 함께 했다. 또한 중보기도팀은 많은 수의 화관을 준비해 그들의 머리에 일일이 씌워주며 축복하고, 이후 전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화관을 전달했다.

그들은 요즘 9월 개국을 앞둔 CGNTV 인도네시아 지사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있다. 또 이런 사역들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중보기도모임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CGNTV가 중계하는, 일본 선교를 위한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에 모든 중보 기도 팀원들이 동행하는 계획도 그려보고 있다. CGNTV를 위해 기도하는 그들은 앞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더 큰 세상을 품고 있는 듯 보인다.



| 월요기도모임 | |
|------------------------|-----------------------|
| ▪ 일시: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2시 | ▪ 장소: CGNTV 본사 1층 비전홀 |
| 금요기도모임 | |
|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 장소: 서빙고 신관 미션홀 |

※ CGNTV를 위한 중보기도모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중보기도모임을 희망하시는 공동체는 CGNTV 후원팀(02-3275-9304)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금요중보기도팀이 의정부 ‘꿈의 교회’에 CGNTV 안테나를 후원했다. 설치 후 함께 기뻐하는 모습.
4. 월요중보기도팀 기도 모습.

가수 알리와 함께 한 힐링 타임

그녀의 노래와 이야기



리의 팬이라며 남편, 딸과 함께 한 40대 여성, 친구, 연인과 찾은 관객 등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알리의 노래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2. 알리의 노래

가수 '알리'는 예명을 지으며 '타이슨'이 될 뻔했다는 우스운 일화가 있다. 그만큼 대중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녀의 보컬 편치는 깊고 강력하다. 그녀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알리게 해주었던, 명곡들을 재해석해 부르는 TV 프로그램은 그녀를 위해 예비된 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매 무대마다 남다른 안목으로 곡을 해석해 다양한 음색의 보컬과 무대 연출로 명곡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심분 전달했다.

그렇기에 그녀가 <힐링유>를 찾았다는 소식은 그러한 그녀의 감성, 보컬의 꺾음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반가운 대목이었다. 이날 그녀는 노래로 힐링을 전하는 사람만큼 녹화가 진행될 한 시간 반 동안 노래로 자신의 중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딸 '알리'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알리'는 자신의 곡인 <365일>로 첫 무대를 열고, 영화 '시스터 액트2' 삽입곡인 <His eyes on the sparrow>와 CCM <목마른 시슴+내게 있는 향유 옥합> 등 은혜로운 찬양 곡들을 이어 부르며 객석을 잔잔한 감동으로 물들였다.

“제 자신이 나약한 것을 보면서
매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1. <힐링유> 녹화 현장

저녁 6시를 넘긴 시간. 하루가 마무리 되는 시간이지만 해가 길어진 탓에 도심은 한 낮처럼 바빠 움직인다. 지난 6월 2일 압구정동 '에홀'도 뜨거운 여름 별 아래 CGN TV 토크콘서트 <힐링유>를 찾은 관객들이 줄을 이었다. 이번 <힐링유> 무대의 주인공은 가수 '알리'였다.

객석에 앉아 뮤지션이 들려주는 또 다른 세계를 기다리는 관객들. <힐링유> 제작팀은 '오늘도 당신께 힐링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언제나처럼 무대에 심혈을 기울였다. 미니콘서트이니 만큼 뮤지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대를 꾸미고, 조명과 음향 등을 면밀히 체크했다. 그리고 진 스텝들의 기도 끝 '아멘' 소리를 '유 사인' 삼고, 본격적인 녹화를 시작했다.

이날 녹화엔 평소 두 배에 가까운 관객들이 차리를 채웠다. 알



<힐링유> 진행자인 텔런트 정태우와 미스코리아 이성혜도 관중들과 함께 객석에 앉아 그녀의 노래를 감상했다. 이어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졌고, 그녀가 부르는 CCM (마음이 상한 자)로 이 날의 무대가 마무리됐다. 이 날 그녀는 관객들의 요구로 그녀가 재해석해 불렀던 <울어라 열풍아>를 앙코르 곡으로 선사하기도 했다.

#3. 알리의 이야기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알리의 무대는 다양한 음악을 접했던 그녀의 성장 여정과 무관하지 않다. 그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판소리를 배우면서 처음 노래를 시작하고, 중학교 때 이후 학창시절 동안 시물놀이, 바이올린 연주 활동도 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후, 재즈 보컬로 활동하며 본격적인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대중음악계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가수 '휘성'과 '거미'의 코러스를 맡으면서다. 힙합 그룹 '리쌍'을 만나 힙합도 접했다. 그녀는 이런 과정들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고3 때 성가대를 하면서 신앙이 깊어졌다. 어려모로 불성실할 때도 있었다고 고백하지만 지금은 말씀 목상이 있어야 하루가 든든하다는 그녀다. 또한 수시로 CGNTV를 통해 영적인 메시지들을 가까이 두기도 한다. 만성 성대 결절 진단을 받고 인생에 위기를 겪었지만 큐티를 하던 중 말씀을 통해 위안을 받고 치유를 확신한 간증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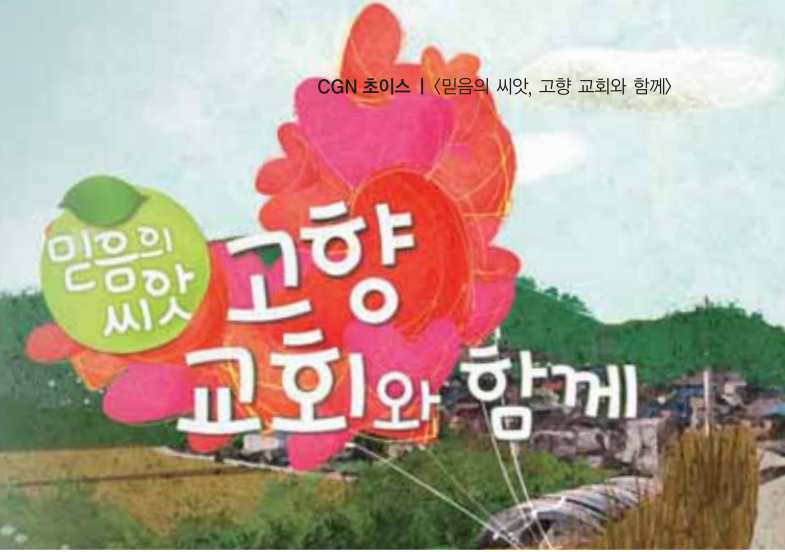
노래를 할 때 그녀가 가장 우선시 두는 점은 진정성이 전달 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곡 <365일>을 부를 때 곡에서 말하는 이별의 경험이 없어서 공책에 가사를 백 번 쓰고 여러 편의 영화도 찾아봤을 정도다. 그녀의 감성 편치가 출발하는 지점이다.

최근 그녀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았단다. 제 자신이 나약한 것을 보면서 매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녀는 비록 대중음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나 음색을 주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에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고백했다. 그녀의 이러한 고백이 그녀가 어떤 무대에 서든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인 듯싶다.

※ <힐링유-알리 편>은 오는 6월 27일 오전 11시 30분 방송됩니다.



그리운 그곳 고향 교회를 찾아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우리 땅 고향 교회. <믿음의 씨앗, 고향 교회와 함께>는 국내 곳곳 고향 교회를 찾아가 복음이 싹트고 있는 따뜻한 현장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찾아가면 모두 지척이지만, 생활 모습은 이국만리 선교지 못지않게 이채로운 고향 교회들.

<고향교회와 함께>는 영적 고향이 그리운 출연진들이 국내 곳곳 고향 교회들을 찾아가 1박 2일 간 그들의 사역을 도우며 사랑을 나눈다. 각 교회들이 늘 해왔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일손을 돕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첫 회에선 찬양 사역자 나무엔이 전라남도 하의면 하의제일교회에 다녀왔다. 그의 주요 일정도 교회의 김우일 담임 목사를 따라 이곳의 일상, 사역 등을 돕는 것이었다. 흠잡을 때 없는 찬양으로 많은 영혼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가, 이곳에서도 찬양을 할 때처럼 능숙하게 교회를 도왔을까? 하루 정도는...하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그는 많은 것들에 서툴렀다. 염소에게 먹이를 주는 일도, 염소를 잡아 마을 주민에게 건네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김우일 목사는 양과 염소를 길러 어려운 농촌 살림에도 보태고 전도의 도구로도 사용하고 있다. 9마리로 시작했던 염소가 지금은 50마리로 늘었는데, 김목사는 염소를 마을 주민들에게 분양해주며 사랑을 나누고 있다.

최근 녹화를 마친 방송인 리키 김은 전라북도 부안군 운호교회를 찾았다. 운호교회 서정용 담임목사는 16년간 농촌지역 목회를 이어왔다. 차세대 사

역에 뜻을 두어 공부방이나 다문화 새댁들 한글 교육 등을 진행하며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리키 김은 이곳에서 오디도 수확해보고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간식을 가져다주며 섬겼다.

<고향 교회와 함께>에서는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는 고향 교회의 훈훈한 현장들이 따뜻하게 펼쳐진다. 또한 나무엔이나 리키 김처럼,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는 이들의 서툰 모습을 보며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다. 꽃이 피고 바다가 보이는 고즈넉한 마을의 풍경,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그늘린 낮, 먹거리가 풍부한 시골 장터의 풍경 등은 이 프로그램이 주는 덤이다.

또한 <고향 교회와 함께>는 노동은 서툴지만 자신이 가진 것으로 진심을 나누는 출연자들의 모습도 조명한다. 난생 처음 하





의면에 갔던 나무엔은 여정의 끝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손수 만든 간식을 나눠주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찬양을 나눴다. 많은 이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리키 김은 운호교회가 섬기고 있는 지역 아이들과 모여 앉아 그들과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눴고, 3회에 출

연했던 헬스 트레이너 정주호는 사역을 돕는 것과 함께 주민들에게 운동법을 전수해 주기도 했다.

첫 회 나무엔 편에 이어, 2회에선 직접 사연을 보내준 이종호 집사가 놓여준 방송선교회 차재완 장로와 함께 110여년 간 한 자리를 지켰던 자신의 고향 교회, 밀양양효교회를 찾아갔다.

< 믿음의 씨앗, 고향 교회와 함께 >는 전라남도 하의면을 시작해서 경상남도 밀양, 거창, 전라북도 부안을 거쳐 다음 행선지를 찾아가고 있다. 꾸준히 이 여정을 함께 한다면, 많은 이들의 마음속 영적 고향에서 더불어 쉬며, 해외 선교지 어딘가를 품듯 오히려 가까워서 잊고 있던 내 나라 숨은 교회를 마음으로 품을 수 있을 것이다.

방송시간 월요일 오전 9시 40분

다양한 생각, 하나의 바람 모니터단들과의 첫 만남

“방송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상호 소통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을 위한 세심한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GNTV 제2기 모니터단 이경훈, 전종희, 김문영 씨의 말이다.

1기에 이어 향후 6개월간 객관적인 시각으로 CGNTV의 바로미터가 되어 줄 2기 모니터단들이 지난 5월 23일 발족식을 갖고, ‘CGNTV호’에 올라탔다. 이번 모니터단들은 1기에 비해 성별과 세대가 좀 더 다양해졌고, 방송 유관 분야 전문가들이 주를 이뤄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차 한 잔을 앞에 둔 첫 만남에서도 열의를 담은 그들의 목소리는 향후 CGNTV 발전에 밝은 앞날을 예고했다.

50대 중반 남성을 대변하는 이경훈 씨는 오랜 신앙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투적인 방송이 아닌 ‘진정성’을 담아낸 감동 방송을 강조했다. 그는 프로그램 <통일복소리>를 예로 들며 “탈북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하게 된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간증을 들으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싶어 몽클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매 때 하나님을 바라보듯 하늘을 향한 CGNTV 안테나가 열방 곳곳의 선교사들에게 힐링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단에서 젊은이들을 만나고 있다는 전종희 씨는 “요즘 젊은이들은 경쟁, 취직, 효율성, 스펙 등의 가치에 메달라가고, 중년들은 세상의 속도에 고독해지고 있다”며 “CGNTV가 그들에게 위안이 되고 세상과는 다른 길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전 씨는 CGNTV가 시청자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세심한 서비스-적절한 자막, 개시판을 통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 등을 올려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들도 제안했다.

김문영 씨는 전 MBC리포터이자 아이들을 8년 간 홈스쿨링으로 양육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녀는 그간 홈스쿨링을 위해 CGNTV의 강의, 세미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했다고 한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또한 그녀는 “미니콘서트 <쉽>, <클래식 갤러리>(종영) 등은 꾸준히 애청한 프로그램”이라며, “방송을 시청하는 시간이 자신에게 하나의 놀이이자 휴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프로그램을 누리는 입장에서 분석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 조금은 아쉽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신규 프로그램 <은빛날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시니어 선교를 다루는 <은빛날개>가 언뜻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지만 직접 보니 시니어를 준비해야 하는 3, 40대에게 더 어필되어야 할 것 같다는 것이다. 그 세대에 집중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말도 이어갔다.

방송에 대한 애정은 물론 ‘복음 전파를 위한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모니터단을 시작했다. 모두 부르심에 따라 모였다는 그들은 프로그램 분석을 넘어 이미 CGNTV와 함께 새 일을 시작한 듯 보였다.



방송에 대한 애정과
‘복음 전파를 위한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모니터단을 시작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까이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 [기타시청문의] 02-796-9800

위성TV

- ▶ 국내 설치비용 : 30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3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재단법인 은누리선교재단)

스마트폰

1. 어플리케이션 CGNTV Live
 - 이용방법: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2. 모바일웹 m.cgntv.net
 - 이용방법: 인터넷 주소 창에서 m.cgntv.net 로 접속
3. 팟캐스트
 - 이용방법: 어플 설치 (아이폰: Podcast // 안드로이드폰: 올팟 그레이)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 영상 다운로드

케이블TV

- ▶ CJ헬로비전 ch.702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SK Broadband ch.703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NIB 남인천방송 ch.702번 (D-Lux 상품)
- ▶ CBS 무분방송 ch.702번 (프리미엄형 상품)

인터넷 서비스

CGNTV홈페이지에서는 고화질 Live 방송과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CGNTV인터넷 (www.cgntv.net)
2. CGNTV유튜브채널 (Youtube.com/Globalcgn)

IPTV

- ▶ Olleh G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SK Btv ch.554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LG U+ ch.183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SNS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CGNTV의 최근 소식과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www.facebook.com/cgntv
- 트위터 www.twitter.com/cgntv

이슬람, 예수는 선지자 십자가는 없는 사실

김아영 -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선교학 교수
한국이슬람연구소 소장

종교가 인간의 영역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소외될 것이라는 전 시대 학자들의 예견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강력한 종교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다. 또 이 영향력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종교 분쟁, 테러리즘의 소식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중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수단과 보코 하람으로 대표되는 나이지리아의 문제 등은 기독교-이슬람 간의 대표적인 분쟁 사례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했다. 둘 다 예언적 종교 전통(prophetic religious tradition)으로 타협 없는 유일신 신앙을 따르고 있다. 또한 신의 계시, 그가 보낸 선지자들, 윤리적 책임감과 의무, 최후의 심판을 따르는 오래된 세계 종교라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무슬림들은 기독교인,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자 모든 공동체의 조상으로 간주한다. 발생적 근원에 따라 두 종교는 끊임없는 종교적,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 교류하는 긍정적 측면과 오해와 반목, 투쟁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두 종교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신의 계시의 결정체로 구분된다. 기독교의 신



의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계시의 결정체다. 그러나 이슬람은 말씀이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해 '꾸란'에 계시 되었다고 믿는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기독교의 예수는 이슬람의 무함마드가 아닌 그들의 경전인 '꾸란'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듯 계시의 결정체에 대한 두 종교의 차이는 두 종교의 구원론에 있어 큰 영향을 미쳤다. 즉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이슬람은 꾸란에 나타난 알라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무슬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은 구원론적으로 불필요했으므로 역사상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십자가 수난설을 부인하는 것이다.

무슬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 모세, 무함마드와 마



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보고 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로 생각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슬람의 신앙에 가장 기본이 되는 타우히드(Tawhid), 즉 신의 유일성에 대한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꾸란112장 참조).

따라서 무슬림들은 꾸란에 등장하는 예수를 표현하는 '이사'(Isa), '이븐 마리아'(Ibn Maryam, 마리아의 아들), '알-마시'(Al-Masih, 메시아)와 같은 호칭들, 예수의 동정녀 탄생, 기적 행함과 같은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들에 대한 해석도 기독교와 달리 이해한다.

무슬림들의 이러한 이해는 '십자가 사건'에 관한 이해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기독교인들에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구원론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하며, 신론이나 기독교론으로 보아도 당연한 사건이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십자가 사건을 '수라 4: 157'을 근거로, '유사하게 보이거나, 가장되었거나, 단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예수가 아닌 누군가가 예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그것이 예수는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즉 역사적으로 십자가의 수난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예수는 십자가의 모욕과 죽음에서 구원돼야 했기 때문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의 수난은 신의 전지전능함과 유일함에 도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구원론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슬람의 교리는 유일신이 꾸란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했기 때문에, 꾸란의 가르침 즉 이슬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행하면,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즉 예수는 중보자, 구원의 매개자가 필요치 않은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죄지은 자는 신과의 직선적 관계에서 회개와 참회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다른 중보자가 자신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것을 부끄럽고 부도덕하게 받아들이며 실제로 효과 없다고 믿는다. 바로 이 점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타협할 수 없는 차이점이다.

이슬람은 아랍지역의 다신론 문화 속에서 확고하게 유일신 사상을 발전시켰고, 무함마드가 만난 시리아 계로 추정되는 기독교인들에게 전달 받은 기독교의 예수를, 삼위일체가 아닌 삼신론(하나님, 마리아, 예수)으로 이해하면서 배척하게 됐다. 또한 이슬람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배경을 완전히 이슬람화하면서 예수를 무함마드와 같은 선지자로 인식했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유일신 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세계 종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예수에 대한 이해, 즉 기독교론과 구원론에 있어서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슬림 선교를 더욱 어렵게 하는 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독교와 이슬람에 대한 신학적, 교리적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것은 이슬람을 선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CGNTV 해외지사 소식

글로벌 네트워크의 거점

CGNTV 2개 해외지사(미주, 일본), 3개 제작센터(중문, 태국, 아랍)는 현지 선교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각 센터들은 영적 콘텐츠를 자체 제작·보급하고, 각 지역교회들과 협력하며 현지 선교 사역에 주춧돌이 되고 있다. 특히 현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역에 힘쓰고 있다. 각 지사·센터에서 보내 온 국가별 선교소식을 전한다.



아랍 CGNTV

<미디어 미션 콘퍼런스> 진행



아랍CGNTV는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는 아랍권 선교 현장과 함께 했다. 지난 4월 이집트 '카스 알 두바라교회'를 방문, '아랍 투 아랍'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주변국 선교 행사를 참관했다. 이 행사에는 불안한 정국 속에서 다수의 한국 선교사들도 참석했고, 1만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도 진행됐다. 또한 지난 6월 2일부터 4일까지 두바이에서는 아랍지역 최초로 <미디어 미션 콘퍼런스>가 진행됐다. CGNTV를 비롯해 10여 명의 패널들이 참석해 아랍 내 미디어 선교를 위한 분야별 사역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선교를 위한 방향성과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선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본 CGNTV

일본 내 이스라엘 사역 박차

일본CGNTV는 일본 내 '이스라엘 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첫 단계로 먼저 '이스라엘을 알자'는 취지 아래, 지난 4월 <이스라엘 기획 세미나>를 동경 요도바시 교회에서 개최했다. 일본교회 목회자, 성도 1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는 이스라엘 전문가 류모세 선교사가 강사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저서 '열린 성경'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 풍습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성경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 CGNTV는 이번 세미나의 후속으로 본 주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샬롬! 이스라엘>도 진행할 계획이다.

미주 CGNTV

신규 찬양 프로그램 <그때 그 찬양>



미주 CGNTV는 신규 프로그램 <그때 그 찬양>을 선보인다. <그때 그 찬양>은 크리스천들에게 친숙한 찬송가와 7,80년대 소개됐던 주옥같은 찬양 명곡을 소개하고 함께 불러보는 프로그램이다. 미주 지역 이민 1세대들과 선교사들에게 추억의 찬양을 전하며 다시 한 번 은혜를 되새겨보는 시간. 90년대 찬양사역의 대표 주자였던 소리엘 지명현 목사가 찬양사역자 구현화 사모와 함께 진행을 맡는다. 소리엘이 불렀던 <하나님이시여>를 첫 곡으로 <주께 가오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목마른 사슴> 등이 방송될 예정이다.

중문 CGNTV

개국 6주년 감사 이벤트



중문CGNTV는 오는 7월 15일 개국 6주년을 기념, 대만 교회, 크리스천 사역단체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 페이스북(www.facebook.com/cgntvchinese)을 통해 CGNTV에 관한 퀴즈(6/28 마감) 및 시청 소감 이벤트(6/17 마감)도 진행하고 있다. 중문CGNTV는 대만남부지역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까오슝 일심교회(김기문 선교사 사무)를 방문해 미국 PCA 교단의 Harry L Reeder 목사가 진행하는 <목회 성장 세미나>를 촬영했고, 100여 명의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들에게 CGNTV를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태국 CGNTV

태국 전역 네트워크 <10분 메시지> 제작



태국CGNTV는 태국 선교 5년 장기 프로젝트로 태국 전역을 돌며 지역 목회자들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담은 프로그램 <10분 메시지>를 제작한다. 태국 최대 교단인 C.C.T와 태국 목회자 협의회가 협력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남한 면적의 약 5배에 달하는 태국 전역 77개도를 잇는 지역네트워크를 세우고 은혜의 메시지를 보급하지는 취지. 이번 프로젝트로 제작된 모든 프로그램은 다시 DVD와 MP3 파일로 제작돼 태국 각 지역 전도용품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CGNTV 국내소식



세월호 참사 특별방송

CGNTV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특별방송을 통해 국가적 재난과 함께 했다. 홈페이지 내 중보기도 페이지를 만들어 기도 운동을 독려하고, 일일뉴스 'CGN투데이'를 통해 현장 소식과 함께 다양한 기독교적 대안을 전했다. 아울러 '주여, 이 땅을 위로하여 주소서', '회복하여 주소서', '사랑하여 주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목회자 기도메시지, 기도문, 찬양SB, ID 등을 선보였다. 또한 각 4월 26일과 30일에는 위 주제와 관련해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CGNTV, 인도네시아 '라이프채널' 서 방송

CGNTV는 지난 4월 17일 현지 최대 위성방송업체 인도비전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지 채널에 CGNTV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골자. 이에 따라 CGNTV 프로그램들이 오는 9월부터 인도비전의 기독교방송 채널 '라이프채널'에서 매일 3시간씩 방송된다. 한편 CGNTV는 오는 9월 인도네시아에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CGNTV, IPTV 3사 풀HD방송

CGNTV 프로그램들이 IPTV 3사에서 풀HD로 방송된다. 지난 2011년 11월 LG '유플러스TV'를 시작으로, 올해 1월과 3월 KT '올레TV'와 SK 'BT'까지 고화질 풀HD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 기독교 방송 최초로 고화질 방송 시대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풀HD는 기존 LCD, PDP TV의 기본 사양인 HD급 보다 화질이 2배 이상 개선된 기술로, 일반 TV 사양인 SD급보다는 6배 이상의 화질을 선보인다.



CGNTV 직원수련회

CGNTV는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양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직원 수련회를 가졌다. "너희가 살아나라! 너희가 알리라"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예배, 교제, 기도회 등을 가지며 사역에 지친 직원들의 몸과 마음, 영성을 회복하고 방송 선교사로서 다시 한 번 소명의식을 재정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별히 도서 '하나님의 대사'의 저자 김하중 장로가 저녁 집회 강사로 서 직원들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 중계

CGNTV가 '2014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를 중계한다.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오는 7월 7~11일 서울 양재동 햇불선교센터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 세계 흩어져있는 한민족에게 민족적, 선교적 정체성을 일깨우는 자리. 전 세계 2천여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해외 이주민)가 참석할 예정으로, CGNTV를 통해 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다.



CGN 직원 예배, 유명 한국교회 목회자 초청

CGNTV 전 직원 자체 예배에 깊이 있는 영성의 목회자, 신학자들이 방문해 은혜의 말씀으로 영적 도전을 주고 있다. 올해 초부터 서정오(동송교회) 목사, 김병삼(만나교회) 목사, 박성민(한국CCC대표) 목사, 조병호(하이기쁨교회) 목사 등이 방문해 말씀을 선포하고 방송선교에 매진하는 CGNTV 직원들을 격려한 것. CGNTV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은혜로운 방송을 만들고자 전 직원이 매일 아침 예배로 시작하고 있다.



CGNTV 편성 프로그램

CGNTV Program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05:00 일본 아마토 갈보리 채플예배 06:0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랑(영어) 06:30 생명의 삶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3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 10:4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 11:20 새벽나라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7:30 [말씀]서정오 목사(동승교회) 08: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09:00 [말씀]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09:4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0:20 [말씀]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7:30 [말씀]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08:10 햇불 트리니티 성경강좌 <로마서 강해> 09:00 [말씀]라준석 목사 (시드니새승교회) 09: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0:20 [말씀]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 |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7:30 [말씀]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8:10 홈 에듀케이션 세미나 09:00 [말씀]유진수 목사(ANC) 09:4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 10:20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 10:4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7:30 [말씀]김창근 목사(무학교회) 08:10 창조과학스쿨 - 창조와 복음 09:00 [말씀]김병삼 목사(만나교회) 09:40 충성! 은혜로軍 10:20 [말씀]이찬수 목사 (분당우리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7:30 [말씀]김인중 목사 (안산동산교회) 08:10 한국리더십학교 09:00 [말씀]이기훈 목사 (시드니온누리교회) 09:4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 10:20 이재훈 목사의 비전메시지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토크콘서트 힐링유 |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월드리포트 06:00 생명의 삶 07:30 [말씀]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08:10 조셉 프린스의 은혜 09:00 CGN 비전특강 10: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10:4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 11:20 휴먼다큐 C |
| 13:10 미니콘서트 쉽 13:20 어린이예배 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 16:00 영어예배 17: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17:40 [말씀]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 12:30 하용조 목사의 사랑(영어자막) 13:30 [말씀]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4:1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 14:50 [말씀]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15:3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00 [말씀]박성민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16:40 [컨퍼런스]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17:1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7:40 새벽나라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 12:30 [말씀]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3:30 [말씀]정근두 목사(울산교회) 14:1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4:50 [말씀]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15:3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00 [말씀]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40 톨리안 차비진의 에베소서강해 17:1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휴먼다큐 C | 12:30 [말씀]김지철 목사(소망교회) 13:10 [말씀]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4:50 [말씀]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15:3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00 [말씀]정현구 목사 (서울영동교회) 16:40 힐송처치 메시지 17:1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7:40 새벽나라 17:50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 | 12:30 [말씀]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13:30 [말씀]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14:1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 14:50 [말씀]정인수 목사 (아들란타연합장로교회) 15:3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00 [말씀]양준길 목사 (뉴저지필그림교회) 16:40 [컨퍼런스] 제자 ² 17:1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 12:3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랑 (영어) 13:30 [말씀]장덕순 목사 (이리신광교회) 14:10 충성! 은혜로軍 14:50 [말씀]마크최 목사(뉴욕IN2) 15:3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00 [말씀]홍성욱 목사 (안양제일교회) 16:40 침 그림의 천국의 비밀 17:1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7:40 새벽나라 17: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 12:00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 12:4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 13:30 [말씀]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14:10 [말씀]이찬수 목사 (분당우리교회) 14:50 [말씀]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5:3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3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17:30 [말씀]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
| 18:2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0:3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21:10 햇불 트리니티 성경강좌 <로마서 강해> 22:1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23: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00:20 생명의 삶 | 18:50 [말씀]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9:30 충성! 은혜로軍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21:00 [말씀]김병삼 목사(만나교회) 21:40 CGN 비전특강 22:4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23: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23:50 맥스 루케이도의 여호수아세대 00:20 생명의 삶 | 18:50 [말씀]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19:3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 20:10 햇불 트리니티 성경강좌 <로마서 강해> 21:0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랑(영어)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22:4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23: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23:50 크레이그 그로셀의 참된 부자 00:20 생명의 삶 | 18:50 [말씀]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9: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20:10 홈 에듀케이션 세미나 21:00 [말씀]박은조 목사 (은혜샘물교회) 21:40 CGN 비전특강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23:50 데이비드 플렛의 래디컬 00:20 생명의 삶 | 18:50 [말씀]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19: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0:10 아시아 기도성회 - 아시아에서 예수살렘까지 21:00 [말씀]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 23: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0:20 생명의 삶 | 18:50 [말씀]박완철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9:3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 20:10 한국리더십학교 21:00 [말씀]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2:40 휴먼다큐 C 23: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23:50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입니다 00:20 생명의 삶 | 18:30 하용조 목사의 사랑(영어) 19:10 아시아 기도성회 - 아시아에서 예수살렘까지 20:10 미니콘서트 쉽 20: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21:00 [말씀]유진수 목사(ANC) 21: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2:2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 23:0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 23:40 토크콘서트 힐링유 00:20 생명의 삶 |

공민 씨의 특별한 첫 잔

의정부 민락동. CGNTV 후원인 공민 씨가 운영하는 카페, '커피와 공작소'를 찾았다. 가게는 이름처럼 커피향이 그윽한 아담한 공작소 같았다. 오후 3시경, 가게 한 두 자리를 채운 손님들이 한 가롭게 오후를 보내는 동안,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공민 씨는 한창 손이 바빴다.

그녀는 2년 가까이 '커피와 공작소'를 운영해왔다. 그리고 자리를 잡은 이듬해부터 매일 처음 팔린 메뉴의 값을 CGNTV에 후원했다. 어떤 날은 1만 2500원, 어떤 날은 3500원 금액에 대충이 없었다. 그저 첫 잔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 그녀가 후원 처로 CGNTV를 택한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을 가장 자주 만나는 곳이 다름 아닌 CGNTV였기 때문이다.

클라리넷을 전공했던 그녀는 5년 전, 의정부로 이사 왔다. 줄곧 해왔던 레슨을 여러 이유로 계속 하기가 여의치 않아 커피로 눈을 돌리게 됐다. 워낙 커피를 좋아해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있던 그녀는 이를 계기로 '커피와 공작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좋은 주인을 만나 주도적으로 일을 했고, 지금까지 원두를 공급해주고 있는, 커피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는 한 목사님도 만나게 됐다.

하지만 그녀는 이사하면서 새로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다. 여러 교회를 전전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그녀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던 끈이 CGNTV였다. 고향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을까? CGNTV를 통해 신앙의 토양을 다져주었던 목회자들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아침이면 습관적으로 CGNTV를 켜고, <생명의 삶>을 통해 큐티 시간을 갖고, 출퇴근길엔 늘 말씀을 듣게 됐다.

마치 CGNTV가 선교지에 교회가 되듯, CGNTV는 쉽게 교회에 정착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운 그녀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회였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 첫 잔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CGNTV에 하게 됐죠.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 등



후원인 | 공민 님



여러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2014년을 시작하면서 '첫 소산을 드리라'는 말씀이 유독 마음에 와 닿았다. 2013년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첫 소산을 드렸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커피와 공작소' 이름으로 새롭게 후원을 시작했다. 매일 하나님께 첫 잔을 드리면서 마음이 좋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다는 그녀.

그녀는 우스갯말이라며 "드문 일인데 첫 손님이 빙수를 주문하시면 속으로 하나님 오늘 비싼 것 드시고 싶으세요?" 한다.

매일 아침 CGNTV를 켜며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녀만의 교회의 문을 열고, 이내 가게 일을 시작하며 첫 손님을 기다리는 그녀는 어떤 마음일까? 첫 손님을 대면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뵈는 것 같지 않을까? 공민 씨의 하루는 아침마다 새로울 듯싶다.

후원 안내

CGNTV는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복음방송'입니다

선교를 위한 선교사! 선교지를 품은 여러분의 손길은 세계 각국에 복음으로 선포되어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1. CGNTV 방송사역 후원

1) 정기후원

- (1) CMS 자동이체(Cash Management Service) <http://give.cgntv.net> '정기후원하기' 클릭, 정기후원약정서 작성
- (2) 은행 자동이체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를 통해 후원 가능

2) 일시후원

- (1) <http://give.cgntv.net> '일시후원하기' 클릭
- (2) ARS 전화후원 : 060-700-1660 (한 통화에 5천원)

후원계좌번호

| | |
|-------------------------|-------------------------|
| ✦ 하나은행 573-910002-67804 |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 ✦ 외환은행 630-004878-302 |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 ✦ NH농협 301-0072-3639-01 |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

※ 정기/일시 후원문의 : 02)796-2243

2. 드림온 캠페인-선교지 안테나 설치 후원

본 후원은 170여 개 나라 선교사님들께 위성 안테나를 지원하시는 캠페인입니다.

- 1) 인터넷 신청 : <http://give.cgntv.net> '드림온 캠페인' 클릭
- 2) 후원계좌 :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 문의 : T. 82-2-796-1118 / F. 82-2-796-1398

3. 기도후원

정기 기도모임을 통해 CGNTV를 지원하고 격려하실 수 있습니다.

- 1) 매주 금요일 아침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1층 카페방
- 2) 매달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CGNTV 본사 1층 비전홀

CGNTV 실행위원회

김종건(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성 배종수 이광형 이인용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구재영 권득한 김관근 김관식 김명세 김명철 김성목 김성진 김영길 김 인 김장렬 김정호 김정훈 김종수 김종호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남상욱 문애란 문영기 박상송 박은영 박찬규 박찬중 서정호 서준희 선우석 손한기 송영태 신철우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오진권 유병진 유인선 유주희 유철호 유 형 윤덕순 윤원식 윤현진 이관수 이국주 이남식 이병하 이석일 이영희 이용경 이용만 이은경 이일표 이장수 이학일 이호영 이희연 임진욱 장양희 장정심 정광택 정병균 정영기 정용주 정진호 조옥형 지성한 차준한 최도성 최득린 최훈학 추말자 하성기 한형식 함승아 홍혜실 황상윤